

이 보고서는 가로 화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가로로 돌려서 더 편하게 보세요!

세이브더칠드런

2025년 국내사업 결과보고

COVER STORY

식사지원을 받은 아동



CONTENTS

2025년 국내사업 소개 04

사업 ① 이주배경아동지원 사업 06

사업 ② 아동식사지원사업 11

사업 ③ 가정위탁 양육코칭프로그램 15

2026년 국내사업 계획 19

2025년 국내사업 소개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 2025년 결산 기준,
전체 후원금의 80%를 아동을 위한 사업비로,
나머지 20%를 모금 및 일반관리비로 사용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국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보호, 빈곤·위기, 자립성장,
권리옹호, 참여 및 인식개선, 인도적지원/기후위기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합니다.

또한, 우리는 아동과 가족, 지역사회와 함께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정책을 개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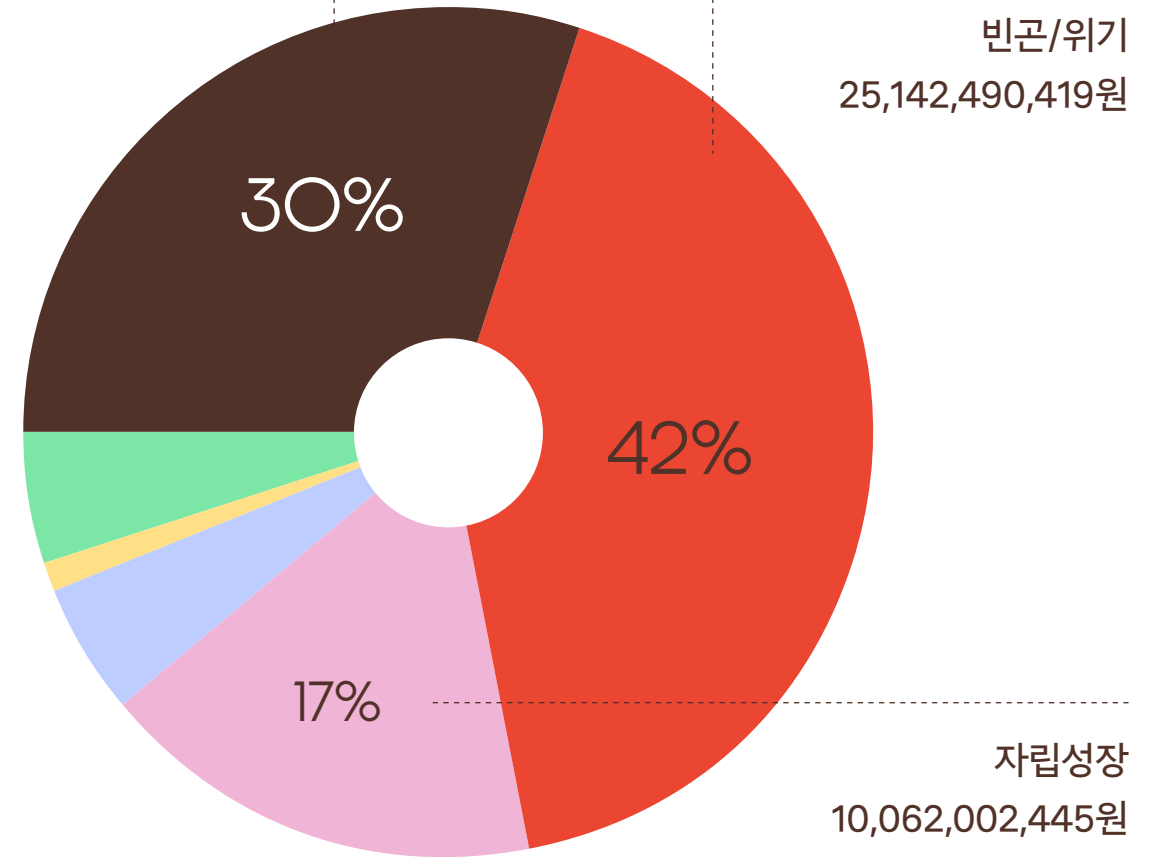
2025년 국내사업 영역별 후원금 지출

합계 60,365,053,351원

보호
18,246,863,469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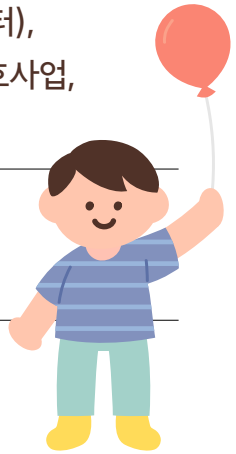
빈곤/위기
25,142,490,419원

- 권리옹호
5% | 3,352,274,664원
- 인도적지원/기후위기대응
1% | 676,892,743원
- 참여/인식개선
5% | 2,884,529,611원



2025년 국내사업 영역 및 사업 내용

구분	세부내용
보호	학대피해아동심층사례관리사업, 가정위탁지원사업, 양육코칭프로그램, 아동보호시설지원(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지원사업,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지원, 아동학대예방프로그램, 이주배경사례관리모델개발, 아동에게안전한기관만들기, 지역아동보호사업, 긍정적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한 양육자 교육, 아동보호를 위한 통학로 안전 교육사업
빈곤·위기	위기임산부 및 아동지원, 복합위기아동 맞춤형 통합지원(우리 같이 한아이 키우기), 아동식사지원, 보건의료지원, 이주배경아동지원, 난민아동지원, 국내아동결연, 지역빈곤위기지원사업, 위기아동 학습지원 및 생활용품지원사업
자립성장	꿈성장지원기관운영(새움센터), 미래역량강화지원, 가족돌봄청소년지원, 장애아동발달지원, 삼성다문화청소년스포츠클래스, 아동복지시설지원, 놀권리(놀이환경개선, 놀이환경진단), 지역자립성장지원사업, 자립청년 주거안정지원사업, 발달지연·장애아동지원을 위한 솔루션 발굴 사업
참여&인식개선	국제어린이마라톤, 아동참여활동,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영세이버), 지역 및 아동권리옹호사업, 아동권리교육, 아동권리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운영, 농어촌 도서관 지원사업
인도적지원/기후위기대응	국내 재난대응 활동(산불피해복구 및 긴급구호지원, 피해가정지원), 기후위기 인식증진 활동, 아동 주도의 기후위기 대응활동(어셈블), 생물다양성 학교숲조성 사업, 지역아동센터 전기차 지원사업
권리옹호	아동사망검토제 도입활동, 가정방문서비스법제화 도입활동, 자녀살해 후 자살 예방 및 대응,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장,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도입활동, 아동구금 대응,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제도개선, 장애아동 발달권 보장활동, CRC 등 유엔인권규약 대응 활동, 아동기본법 등 국회 대응



2025년에 국내에서 진행된 다양한 사업들 중 특히 주목할 만한 세 가지 사업 성과를 소개합니다. 각 사업의 담당자들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로 사업의 의미와 가치를 보다 깊이 있게 전달드립니다.

문턱에 선 아동의 삶을 지키는 이주배경아동지원 사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이주배경아동지원> 사업을 담당하는 권리옹호사업부문 나지혜 선임매니저, 문지은 매니저입니다.

우리 곁에는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품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낯설지 않은 존재가 되었지만, 그 아이들이 마주하는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교실과 놀이터에서는 함께 어울리지만, 제도와 환경의 문턱 앞에서는 혼자서 있어야 하는 순간도 적지 않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어떤 배경을 가졌든 모든 아이가 '아동'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 한해 쉽없이 현장을 오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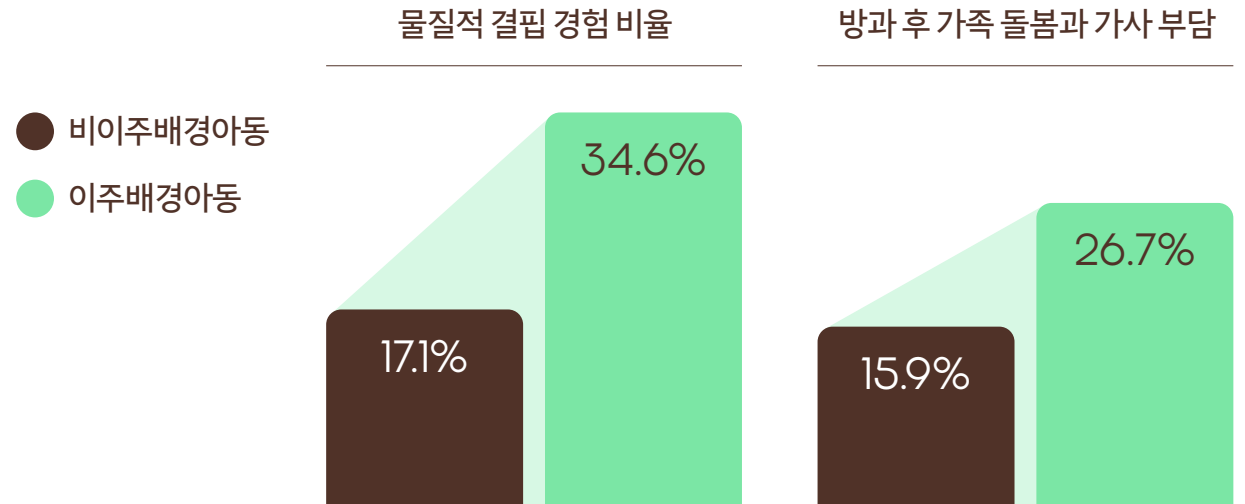
1 지표가 말해주는 현실의 격차, 제도의 경계에 선 아이들

세이브더칠드런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이주배경아동 삶의 질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우리가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주배경아동의 물질적 결핍 경험 비율(34.6%)은 비이주배경아동(17.1%)의 두 배에 가까웠습니다.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비율은 최대 14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방과 후 가족 돌봄과 가사 부담 역시 26.7%로, 비이주배경아동(15.9%)보다 더 크게 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질적 결핍은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하루 세 끼 식사나 고기·생선이 포함된 식사, 신선한 과일과 채소, 연령에 맞는 책, 규칙적인 여가활동, 친구를 집에 초대할 수 있는 환경 등 **아동이 일상적으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활과 경험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항목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을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를 물질적 결핍으로 정의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경제적 조건의 문제로 설명되기 어렵습니다.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그리고 쉽게 드러나지 않는 편견은 아이들의 관계 맺기와 정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교실에 앉아 있지만 출발선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지표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부모의 선택으로 체류자격이 없는 아동은 제도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보호 체계 밖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아파도 병원에 바로 가지 못하고, 그 불안정함은 일상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자체·교육청·지역사회와 협력해 숨어 있는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건강한 성장 지원 사업’을 통해 미등록 임신부의 산전·산후 관리부터 영유아 돌봄, 주거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과정을 함께했습니다. 한 시점의 지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성장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② 연구에서 현장으로 이어진 변화

세이브더칠드런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아동 삶의 질 연구>는 2012년 시작되어 2024년 6차 조사까지 전국 17개 시도 아동 약 6만 명의 목소리를 담아왔습니다. 조사 결과가 단순한 통계로 남지 않도록 아동 삶의 질 수준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의원 강경숙,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함께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비이주배경아동 2,376명과 이주배경아동 893명의 응답을 토대로 불평등의 지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현장에서도 움직임은 이어졌습니다. 한 해 동안 170명의 미등록 이주아동과 임산부를 지원했으며, 혹한기 긴급 지원을 통해 249가정에 물품과 생계비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 확인된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와 토론회를 통해 변화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주배경아동의 삶을 들여다볼수록, 이는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됩니다. 연구진은 이주배경아동의 현실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최소한의 발달권 보장이 시급하다고 강조합니다.

아동의 권리는 조건이 아니라 전제입니다. 배경과 국적,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보호받아야 할 기본선이기 때문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아이가 의료와 교육의 공백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제도의 빈틈을 줄이고,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연결해 가겠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만났습니다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어머니의 편지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이주여성입니다.

2022년 한국에 와서 일하던 중 새로운 생명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당시 교제하던 이에게 임신 소식을 알린 뒤 돌아온 것은 폭력과 외면이었어요.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신분 때문에 어디에도 도움을 청하기 어려웠고, 불안과 갈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워 쉼터(보호시설)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에서 지내던 중 34주 만에 아이를 일찍 낳았습니다.

건강보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른둥이로 태어난 아이의 인큐베이터 치료비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습니다.

그때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치료비와 회복 지원, 육아용품, 법률 상담까지 도움받을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아이는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가장 막막했던 시기에 받은 지원은 다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아이가 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저도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 이주배경아동 지원결과



미등록 이주아동 및 임산부 지원

170^명



겨울철 긴급지원

249^{가정}



이주배경아동의 삶의 질 심포지엄 개최

결산

1,003,884,355^원



동화작가를 꿈꾸던 지은이는,
이제 모든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써 내려가도록
돕는 지은이로 살고 있습니다.

문지은 매니저

여덟 살 어린 동생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동화책을 읽어주던
누나는 이제 모든 아이의 내일을
지키고 싶은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지혜 선임매니저



아동의 하루를 바꾸는 한 끼, 아동식사지원사업

후원자님,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아동식사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서울지역본부 이지현 매니저입니다.

하루 세 끼는 누구에게나 반복되는 일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장기의 아이들에게 한 끼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몸이 자라고, 생활의 리듬이 만들어지고,
가족과의 대화가 오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에게는 이 당연한 식사가
매일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기도 합니다.

① 편의점에 집중된 한 끼

매년 약 27만 명의 아동이 결식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더 고민하게 되는 지점은, 지원이 ‘굶지 않는 것’에 머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상당수 아이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아동급식카드 사용 현황을 보면,
사용 건수의 40% 이상이 편의점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접근성은 좋지만, 간편식 위주의 식단은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니다.
배고픔을 면하는 것과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이브더칠드런은 질문을 조금 바꾸어 보았습니다.
‘어떻게 굶지 않게 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울 것인가’로 말이죠.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에 시작된
<아동식사지원> 사업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② 109,680번의 정성이 담긴 식탁

2025년 한 해 동안 서울부터 울산까지 전국 10개 지역본부와 아동권리센터를 통해 417가구, 457명의 아동에게 총 109,680식의 건강한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아동 1인당 주 5식, 연간 240식을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간 셈입니다.

모든 식사는 저염 건강식 기준에 맞추어 준비했습니다. 조리된 반찬뿐 아니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밀키트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보호자의 돌봄 부담을 덜고, 아이가 식사 준비에 참여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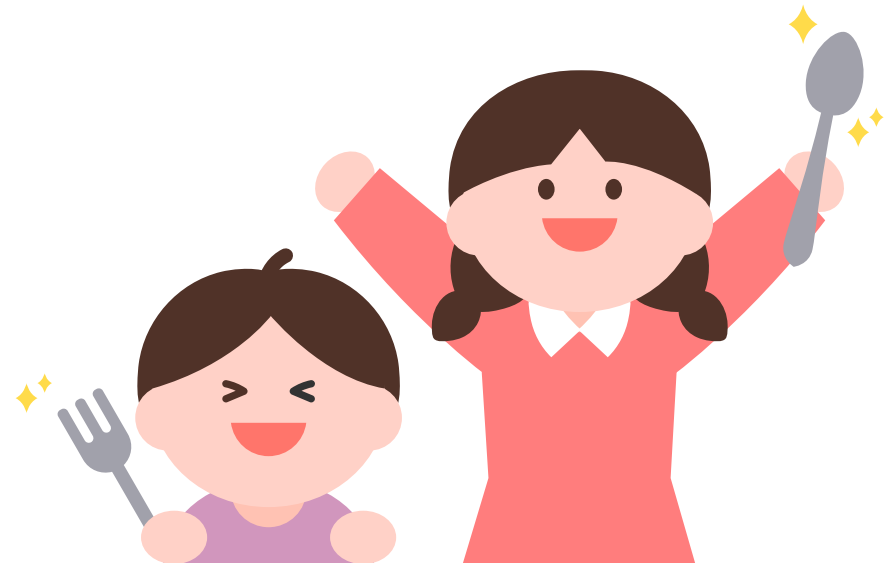
또한 격월 1회 이상 가정을 방문하거나 전화와 문자로 소통하며 식사 환경과 생활 상황을 살폈습니다. 식단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가 잘 이어지고 있는지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결과,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3점을 기록했습니다. 인스턴트 식품 섭취 감소, 편식 습관 개선, 가족 간 대화 증가라는 변화도 확인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제공을 넘어 생활의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습니다.

③ 한 끼의 힘, 아이들의 내일을 지킵니다

식사는 돌봄의 시작입니다. 따뜻한 밥상은 아이들의 평범하지만 소중한 하루를 지켜줍니다. 후원자님의 연대로 457명의 아이들은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아이들의 한 끼를 당연한 권리로 만들겠습니다. 아이들이 배고픔 대신 꿈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를 지키기 위한 노력은 계속됩니다.



우리 집 식탁에 다시 웃음이 생겼어요

아동식사지원사업 참여 가정 및 담당자 인터뷰

반찬 오는 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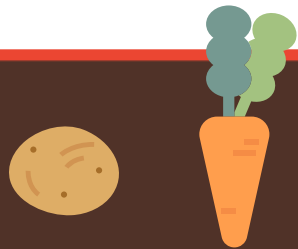
전에는 채소를 잘 안 먹었는데,

아빠랑 같이 요리해 보니까

맛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는 집에서도 밥을 더 잘 먹어요.

초등학생 A양



사춘기 아들과 대화가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밀키트를 받던 날,

아이가 '이건 내가 해볼게.'라고

먼저 말하더라고요. 함께 요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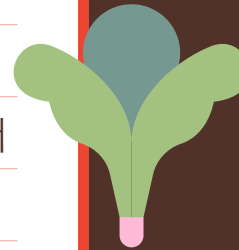
관계가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늦게 퇴근해 식사를 챙기지 못해

늘 미안했는데, 영양가 있는 반찬과

밀키트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맞벌이가정의 보호자 B님



사업 참여 아동들의 인바디 검사를

했는데, 키와 체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균형 잡힌 식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죠.

식사 지원을 계기로 아이들의

생활을 더 자주 살피게 되었고,

현장에서도 의미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기관 담당자 C님



2025년 아동식사지원 결과



총 지원 식사 수

109,680^식
(아동 1인당 주 5식, 연간 240식 지원)



만족도 점수



4.6 점 / 5.0점
(목표 대비 102.8% 달성)



변화의 지표:

인스턴트 섭취 감소, 편식 습관 개선, 가족 간 대화 증가

결산

1,009,175,890^원



호기심이 많아 하고 싶은 것도 많았던 개구쟁이 아이는 이제 아이들이 마음껏 궁금해하고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지현 매니저



다시 가족이 되는 시간, 가정위탁 양육코칭프로그램

안녕하세요, 세이브더칠드런의 <가정위탁 양육코칭프로그램>사업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사업부문 수탁사업지원팀 신미란 매니저입니다.

조손가정에서 아이를 키운다는 일은 단순히 보호자가 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미 부모의 역할을 마친 세대가 다시 아이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일입니다. 체력도, 경제적 여유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학업과 또래 관계, 정서 문제까지 함께 감당해야 합니다.

세대 차이에서 오는 양육 방식의 간극은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체벌과 훈육에 대한 인식 차이, 스마트폰 사용 문제, 학습을 둘러싼 다툼은 일상이 되곤 합니다. 그럼에도 아이에게 가정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아이의 하루도 함께 흔들립니다.

① 흔들리는 자리에서 다시 배우는 시간

세이브더칠드런은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구·전북·충북·부산 4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함께 <가정위탁 양육코칭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136명의 아동과 112명의 보호자, 총 248명의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0~2023년까지 진행된 대리양육가정 양육플래너 시범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당시 조부모의 양육 태도는 9.8% 향상되었고, 가족관계는 11.3% 개선되었습니다. 수치만 보면 크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오래 굳어 있던 관계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조부모 7회기, 아동 3회기, 가족 통합 2회기, 총 12회기로 구성했습니다. 모든 과정은 가정 방문을 원칙으로 했고, 사례 회의를 통해 가정별 목표를 세웠습니다. 학습 갈등, 스마트폰 과의존, 의사소통 단절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맞춰 개입이 이루어졌습니다. ‘방법을 알려주는 교육’이라기보다, 함께 연습하고 조정해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② 숫자로 확인된 변화, 관계로 이어진 시간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6점이었습니다.

사전·사후 검사 결과,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는 평균 14.4점 감소했고, 가족관계와 조부모-자녀 의사소통 점수는 각각 10점 가까이 향상되었습니다. 체벌에 대한 부정 인식도 16% 높아졌습니다.

가정 안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지시가 질문으로 바뀌고, 꾸중 대신 설명이 늘어났습니다. 아이를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성과를 바탕으로 표준화 매뉴얼을 완성했으며, 2026년에는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로 확산하고 실무자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가정의 변화를 넘어, 위탁가정 지원 체계를 더욱 안정적으로 세우기 위한 단계입니다.

가정위탁은 ‘대체 가정’이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의 가정’입니다. 관계가 다시 연결될 때, 아이의 하루도 조금은 덜 흔들립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속상했어요.

가정위탁 양육코칭프로그램 참여 아동과 조모 이야기



17세 지석이(가명)는 또래 관계의 어려움으로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학교에서의 좌절은 집으로 이어졌고, 할머니와의 대화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코칭은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연습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끝까지 듣는 시간, 질문을 던지고 기다리는 시간.

가족 통합 회기에서 지석이는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그냥 속상했어요.”

할머니는 그 말을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12회기를 마친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는 막막했어요. 지금은 손주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관계는 한 번에 바뀌지 않지만, 다시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 ‘다시’를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2025년 가정위탁 양육코칭프로그램 결과



프로그램 참여 아동 및 보호자

248^명



만족도 점수

4.6 점 / 5.0점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평균 14.4 점 감소

결산

316,251,000^원



책에 파문혀 글자로 세상을 만났던 아이는 이제 책이 아닌 아동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 신미란 매니저



2026년 국내사업 계획

국내 아동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2026년에도 후원금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보호, 빈곤·위기, 자립성장, 권리옹호,
참여 및 인식개선, 인도적지원/기후위기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생명을 구하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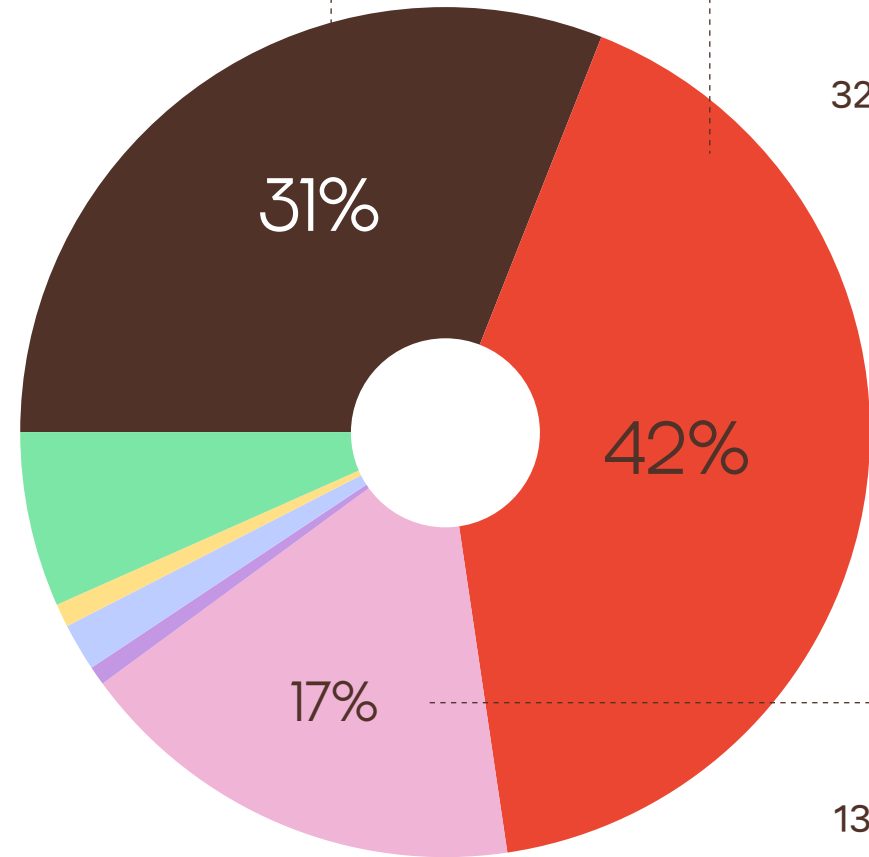
2026년 국내사업 영역별 예산 계획

합계 77,259,761,338원

보호
23,947,421,896원

빈곤/위기
32,189,032,365원

- 권리옹호
6% | 5,141,139,000원
- 인도적지원
1% | 686,972,549원
- 기후위기대응
2% | 1,397,079,406원
- 참여/인식개선
1% | 559,640,457원



자립성장
13,338,475,665원

세이브더칠드런은 앞으로도
사업보고서, 사업보고회 등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후원자님께 더욱 상세한 변화의 이야기를 전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6년에도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국내 아동의 삶을 지키는 여정에 동참해 주세요!

국내 아이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선물해 주시는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투명성 약속

세이브더칠드런은 후원금 사용에 관한 기부금품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된 모든 법률 규정을 준수합니다.

글로벌 4대 회계법인인 EY한영 회계법인에서 외부감사를 받고,
이사회에서 연 1회 이상 내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후원금 사용 내용은 연차보고서,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니
언제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 174

대표전화 02-6900-4400 | 홈페이지 www.sc.or.kr